

## 어린이 책꽂이



▲앗! 스타트 1~5=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교육전문 출판사 스콜라스틱이 만든 '앗 시리즈'를 기초로한 과학교재 시리즈.

우리 몸 혈액, 중력, 행성 우주 등 과학에 대한 재미뿐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과학 원리를 깨칠 수 있게 구성했다.

〈주니어 김영사·각권 8천900원〉



▲편지를 주세요=일본 동화작가 야마시타 하루오가 쓴 그림동화.

한줄한줄 정성들여 쓰다가 지우고 때론 하루 하루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던 편지의 즐거움과 설렘을 태아나서 처음 편지를 쓰게 된 초록 개구리의 모습을 통해 재미있게 표현했다.

〈푸른길·1만원〉



▲위대한 비행=칼데콧 수상, '북리스트' 아동 도서 비평가 도서에 선정된 엘리스 프로벤슨의 그림책.

루이 블레리오가 처음 비행선을 만난 이후 수많은 비행기를 만들고 결국 영국 해협 횡단에 성공하기까지의 실제 이야기들이 간결하면서도 힘차게 표현했다.

〈다신기획·9천원〉



▲내가 좋아하는 애생동물=세밀화로 그린 어린이 애생동물 도감. 멧돼지·청설모·삵·다람쥐·오소리 등 우리 토박이 애생동물을 25종의 생태를 담았다. 높은 절벽 위에서 유유히 내려다보는 산양, 쥐를 보고 쟁하고 뛰어오르는 여우 등 자연 속 애생동물의 모습을 포착해 세밀화로 그대로 읊어놓은 그림이 볼 만하다. 〈호박꽃·1만5천원〉



▲책귀신 세종대왕=책귀신 시리즈의 두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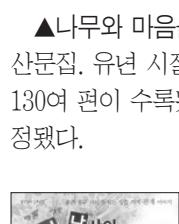
도깨비들이 세종대왕을 만나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내용으로 옛 이야기속에 등장하는 도깨비를 소재로 아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가르쳐주는 재미난 책이다.

〈처음주니어·9천원〉



▲삼고양이 스키피=자기 치와와라고 강아지라고 생각하는 삼고양이 스키피의 이야기. 주인공 스키피는 벽으로 들어가 또 다른 꿈의 세상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영웅이 되는 모험을 한다. 흥미로우면서 웃기고 예측불허의 참신함이 가득 있는 유쾌한 그림책이다.

〈작은책방·9천500원〉



▲나무와 마음을 나누다=중국의 유명 아동문학가 진보(金波)의 산문집. 유년 시절의 체험과 자연, 생명, 환경 등을 주제로 한 산문 130여 편이 수록됐다. 중국 교육부가 추천하는 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됐다.

〈리틀북·9천원〉



▲너와 나 사이 뭐가 문제지?=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 하고, 고민하는 일곱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동화모음집.

서로 다른 색깔의 개성을 가진 일곱 명의 동화 작가들이 '관계'를 주제로 해서 쓴 단편동화 일곱 편을 모았다.

〈청개구리·9천원〉

## 잠자는 자들에게 '법의 보호'도 없다

##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에마뉘엘 피라 지음



"법은 깨어 있는 자들은 보호하지만, 바보들과 잠자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라틴어 경구가 있다. 이 경구는 어떤 법이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꿈 깨라고, 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고 잠자는 사람들은 없다는 짐을 깨닫게 한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용산 철거민 참사, 'PD수첩 제작진' 체포·압수수색 시도, 미처 피지 도 못한 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 장자연 리스트.....

인정하기 싫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기본권 중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마땅한 국민에게 국가는 하위 사설 유포, 명예훼손, 업무 방해라는 죄송을 채워 통제하고 있다.

국가는 가진 자의 밥그릇을 보호하기 위해, 모

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보고자 노력했던 자에게 '법'이라는 이름의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프랑스의 변호사이자 법대 교수인 에마뉘엘 피리의 법철학 입문서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는 엄숙하고, 모순투성이인 법과 그 체계를 이야기함으로써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할 것을encourages.

저자는 "엄숙주의에 물들어 있는 법은 시대의 변화를 적극 반영해 움직이는 유기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를 둘러싼 법은 일상을 지배하고, 사상과 의식 등 지배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며 엄숙주의 따위에 물들어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진다.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법은 정말 만인 앞에 평등할까? 법은 완전무결할까?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 '브레이크'를 건 법에게 '엔진'을 달아주자고 주장하는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법률이 이론들'에서는 법과 종교, 자연법에

서 국제법으로, 실증주의에서 실정법주의로 변한 프랑스의 법 이론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2부 '의식(儀式)-무대위의 법'은 어려운 법률 용어, 변호사, 판사 등 엄숙주의에 물든 법의 문제점을 문학이나 영화를 통해 이야기함으로써 독자를 스스로 법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이끈다.

또 3부 '과오와 실책-법의 작동'에서는 넘쳐나는 법 조항들과 일관성 없는 법이 가져온 과오와 실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지막 4부에서는 인종 차별, 경멸, 시민불복종, 낙태 등 현재 사회 논쟁의 중심에 있는 법리적 이슈들을 다룬으로써 법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재검토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사법 사건들을 통해 보는 쉽고 흥미로운 법 이야기는 문단과 친분이 있는 저자의 재치 있는 글솜씨를 만나 법의 그 무거운 가면을 벗는다.

저자는 그래도 법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알만한 사진과 그림들을 책 구석 구석에 첨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돋우고 있다. 각 장에 내용과 관련된 고전이나 판결문 등을 모은 '읽어보기'를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원제는 'Antimanuel de Droit'. 〈모티브북·2만1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법조계는 사법제도를 이상화하고 신성시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사법제도를 만나보면 정의로서 법은 운데 간데 없고 성역으로서 법만 남아 있을 뿐이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로비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 많은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 엄마

## 사랑하는 나의 엄마...

피천득 외 174명 지음



'엄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오신다면 서슴 없이 대답하겠습니다. 둘 엄니 밭을 깨어 드릴 때입니다.' (전병운)

'하얀 웨딩드레스의 언니를 보내며 엄마의 얼굴은 윤동 눈물 투성이였습니다. 나 보낼 때도 그려신다면 엄마, 나 시집 못 가.' (정연경)

엄마라는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다. 하지만 늘 곁에 있고, 언제나 의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랑한다는 말은 쉽사리 전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사랑하는 나의 엄마에게'는 세상의 모든 아들·딸들이 엄마에게 보낸 짧막한 편지를 모음이다.

피천득·이정환·정재봉·이해인·배창호·최인호 등 유명인들뿐 아니라 일반인 등 모두 174명의 편지를 묶었고 소박한 삽화를 곁들였다.

책에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어머니 살아 생전에 '사랑한다'는 말은 못한 대 대안 아쉬움이 묻어나는 글이 많다.

새삼스레 '날'을 캐겨 편지를 쓰는 게 조금 쑥스럽기는 하지만 어버이날이 들어 있는 5월이 가기 전에 엄마에게, 아니 부모님에게 짧은 편지라도 보니면 어떨까....

〈샘터·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아들과 아버지의 비극적인 재회

## 해와 달과 칼 上·下

마루야마 겐지 지음



스물 세살의 나이에 아쿠다카와상을 수상한 마루야마 겐지는 '천 일의 유리', '물의 가족' 등 화제작을 펴낸 일본의 대표작이다.

마루야마 겐지의 첫번째 역사소설 '해와 달과 칼'(上·下)이 나왔다.

작가는 역사소설의 세계로 인도한 것은 20년도 전에 본 작자 미상의 작품 '일월산수도병풍도'다. 실망한 것이 두려워 실물조차 보려 갑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충격을 받은 저자는 이 그림을 소재로 꼭 글을 쓰고 싶었지만 역량이 부족함을 절감했다.

그리고 20년의 담금질을 거쳐 지난해 세상에 책을 내놓았고, 일문단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작품의 배경은 해적이 발호하던 격랑의 무로마치 시대, 주인공은 황제를 오자 한 작품 '일월산수도병풍'을 완성하여 혼신의 힘을 쏟는 80세 노인이用自己的 시선을 향해 한 남자 아이의 불행한 탄생의 순간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어머니를 살해한 자들에 대한 복수와 생이별한 아버지와의 비극적 재회'가 주 테마다.

마루야마 겐지는 일평생 지속적인 문제 실험을 해왔으며 이번 작품은 사설을 짚고 있는 듯한 리듬미컬하고 유려한 문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학고재·각권 1만 3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통화 황제' 금의 귀환 예고

## 골드

네이선 루이스 지음



3천년 인류 역사상 달러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

골드(에버리치 헐дин스)의 작가 네이선

루이스는 인류에게 영원 불변의 화폐는 달러가 아니라 금이라고 강조한다. 달러는 1971년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이 금본位제를 포기하면서 현재까지 38년간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금은 기원전 7세기부터 20세기까지 무려 27세기 동안 가장 중요한 화폐로 통용돼 왔다는 것이다.

가자주자전략가로 유명한 저자는 화폐의 유형, 화폐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통화 위기란 큰 틀 안에서 인류의 최초이자 마지막 안정화폐인 금의 모든 것을 낱낱히 파헤치고 있다.

종이 화폐인 달러는 인간의 탐욕에 따라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왔고, 2007년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흉으로 바로 달려온 것이다. 따라서 '달러를 대우고 금을 모으라'고 역설하고 있다.

세계의 통화 위기 사례로 한국의 IMF 구제금융 등 1990년대 말 아시아 경제위기를 분석한 자료가 눈길을 끈다.

지난해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쟁哄의 '통화전쟁'이 달려의 위상 약화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책이라면, 네이선 루이스의 '골드'는 통화의 황제적인 금의 화려한 귀환을 예고하는 작품이라 할 만 한다.

〈에버리치 헐дин스·2만 8천원〉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주)국민법률경매 \*서구청 옆 광주세무사태운5층

## 도지 / 대지 / 건물 / 템 / 토지 / 대지

## 도로 / 산 / 템 / 토지 / 대지 / 건물 / 템 / 토지 / 대지

## 도로 / 산 / 템 / 토지 / 대지 / 건물 / 템 / 토지 / 대지

## 도로 / 산 / 템 / 토지 / 대지 / 건물 / 템 / 토지 / 대지

## 도로 / 산 / 템 / 토지 / 대지 / 건물 / 템 / 토지 / 대지

## 도로 / 산 / 템 / 토지 / 대지 / 건물 / 템 / 토지 / 대지

## 도로 / 산 / 템 / 토지 / 대지 / 건물 / 템 / 토지 / 대지

## 도로 / 산 / 템 / 토지 / 대지 / 건물 / 템 / 토지 / 대지

## 도로 / 산 / 템 / 토지 / 대지 / 건물 / 템 / 토지 / 대지

## 도로 / 산 / 템 / 토지 / 대지 / 건물 / 템 / 토지 / 대지

## 도로 / 산 / 템 / 토지 / 대지 / 건물 / 템 / 토지 / 대지

## 도로 / 산 / 템 / 토지 / 대지 / 건물 / 템 / 토지 / 대지

## 도로 / 산 / 템 / 토지 / 대지 / 건물 / 템 / 토지 / 대지

## 도로 / 산 / 템 / 토지 / 대지 / 건물 / 템 / 토지 / 대지

## 도로 / 산 / 템 / 토지 / 대지 / 건물 / 템 / 토지 / 대지